



산청군, 생비량면 방화지구 새뜰마을사업 마무리

메트로신문 이도식 기자 | 2023-12-19 13:57:47



사진/산청군

산청군은 생비량면 방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비량면 방화마을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와 함께 진행한 사업에서는 마을회관 및 공동 작업장 신축을 비롯해 주택 정비(슬레이트 지붕 개량·빈집 철거·집 수리), 마을 안길·배수로·재래식 화장실 및 노후·불량 담장 정비, CCTV 및 소화전 설치,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이뤄졌다. 특히 노후화된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민 화합과 교류의 공간을 마련했다.

또 마을 중심부에 흉물로 남아있던 공동 창고를 철거하고 공동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신축해 마을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했다.

산청군은 사업 마무리에 따라 준공식을 열고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기념했다. 방화마을 마을회관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이승화 산청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관계자, 생비량면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호 방화마을 추진위원장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민 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한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화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마을 경관이 개선돼 무척 기쁘다"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이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 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